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명제에 대한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적 명제에 포함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논변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와 삶에 관한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일을 주요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일상 속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할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가): 윤리학이 학문적 지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 ③ (나): 역사적·문화적·인류학적으로 도덕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다.
- ④ (나):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성과 부도덕성의 구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적 지성은 일반적으로 점차 증대해 가면서 사회적 특권 세력의 요구를 억제하고 비특권 계층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 내에서 이성의 힘은 평등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다만 목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따름이다.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배워야 한다.

<보 기>
 ㄱ. 국가의 도덕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성취 수준에 정비례한다.
 ㄴ. 한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 견제된다.
 ㄷ.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강제력이 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실천 이성의 명령으로 세운 도덕 법칙을 자신의 의지로 따를 수 있는 예지체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자율이란 실천 이성을 통해 스스로 명령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
 재수생 A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 최근 회의를 느끼고 있다. A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인지, 무엇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기 계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의지와 모순됨을 명심하세요.
- ② 자기 계발의 의무를 실천해야 선의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③ 자기 계발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보편화된 의무임을 고려하세요.
- ④ 자기 계발은 공동체의 관행에 내재한 선(善)의 실천임을 고려하세요.
- ⑤ 자기 계발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의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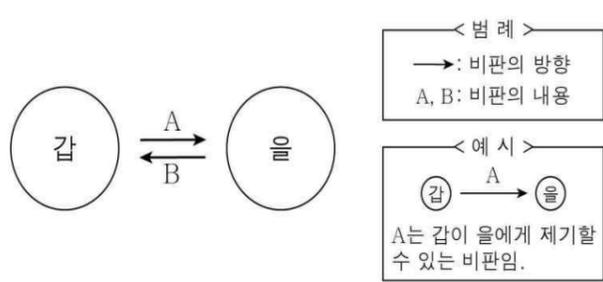
4. 그림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폭력은 필요로 하는 것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향하는 인과적 흐름에 대해서는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착취나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도록, 또는 그러한 착취를 전혀 보지 못하도록 전도하고 가르치고 혼계하며 충동질하고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한편,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라는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폭력은 삼각형의 어떤 꼭짓점에서든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 쉽게 전해집니다.



- ①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일방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②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결과로 사후에 형성되는 문화 현상이다.
- ③ 문화적 폭력은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모두 지닌 폭력으로 가시적이다.
- ④ 문화는 폭력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평화의 정당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 ⑤ 문화적 폭력은 폭력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명확히 부정적인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얻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데 합의함을 의미한다.</p> <p>을: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p>
(나)	

- ① A: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원들을 고려하는 원칙임을 간과한다.
- ② A: 공적 정의관은 올바른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요구함을 간과한다.
- ③ B: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모두 비역사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을 간과한다.
- ④ B: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⑤ B: 정의의 원칙에 의해 재화의 평등 분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 사회 또는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을: 커먼웰스가 없는 곳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 ① 갑: 권위를 가진 공통의 재판관이 수립되면 전쟁 상태가 초래될 수는 없다.
- ② 갑: 국가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구성원이 양도한 것 이상의 권력을 지닌다.
- ③ 을: 주권자와 신의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야 선과 악의 기준이 공적으로 확정된다.
- ④ 을: 개인의 자연권 양도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행위이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의 대다수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종교적 선조들의 행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실존의 큰 부분이 그의 존재의 깊은 곳,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발하는 충동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일 뿐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런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활동과 비합리적인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신화적 이미지 및 형상과 놀랄 만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무의식의 내용과 태고의 실존적 상황, 특히 위기의 상황이 낳은 결과이다. 이 때문에 무의식은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게 된다.

- ① 이성만으로 환원된 인간상은 비종교적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 ② 세속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단절되어 있다.
- ③ 비종교적 인간도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생의 종교적 비전을 회복할 가능성을 지닌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실재와 관련된 사건을 거부한다.
- ⑤ 종교적 인간은 고정불변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스스로 자신을 만들려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공평한 방식으로 시험해 볼 때, 자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만한 충분한 근거는 거의 없으며, 우리에게서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을: 잘 사는 사람들의 집단과 빈곤한 사람들의 집단이 협동하기를 허락하는 것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잘 사는 집단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실제 개인들의 권리 침해를 포함하므로 심각한 문제이다.

- ① 갑: 인종과 성 차별 극복을 위한 원조는 정언명령의 형식을 띤다.
- ② 갑: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곳에 우선 원조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를 위반한다.
- ③ 을: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원조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을: 원조는 자선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
- ⑤ 갑과 을: 정의로운 국가는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형벌을 면하게 하거나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어야 한다.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하나의 정의이기를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p> <p>을: 형벌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다른 일반인 속에 공포감을 주입하기 위해서이다. 사형이 그 고통을 한순간에 집결시키는 것인 반면, 노역형의 고통은 그의 전 생애에 분산된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도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야기한다.</p>
(나)	

<보 기>

ㄱ. A: 범죄자의 동의는 형벌권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ㄴ. B: 살인자가 아닌 범죄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응보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ㄷ. C: 생명권의 양도 여부는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근거인가?
 ㄹ. C: 사형과 종신 노역형이 갖는 각각의 범죄 예방 효과는 이분법적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가 있으나,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을: 네 가지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진리는 괴로움이라는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진리,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이다.

◎ 학생 답안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하며,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행하여 사덕(四德)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을은 ㉢자신과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현세에서 선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 모두 ㉤도(道)를 따르면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